

[성명]

## 합리적 상식적 인사정책을 촉구한다!

지난해 여름 출범한 대학본부는 개혁의 일환으로 단과대학 행정실장 겸직 및 학사지원실 배치 운영과 직원 보직자 간 평가 실시를 표명하고 있다. 다가올 정기인사에 맞춰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는 것에 조합원들은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노동조합에 전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대학본부가 상식과 합리성에 부합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단과대학 행정실장 겸직 추진에 따른 분명한 기준과 내용을 설명하고, 과중한 업무 전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편·직제의 개편 없이 기존 체제에서 겸직으로 업무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단과대학 행정실(장) 겸임 및 통합 운영은 과거 전례에서 상기하듯 이미 실패로 검증된 것이다. 20년 전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 것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과중한 업무량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본교의 단과대학은 별도의 독립체로 비유될 만큼 독특한 관행을 유지해 왔기에, 행정실 운영의 개편에서 과다 업무량과 혼선 야기, 학생 서비스의 부실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를 따져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직원 보직자 간 평가를 통한 보직자 서열화는 인사권자가 할 일이 아님을 강조한다. 경영철학에 부합하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 마찬가지로 보직에 발령받지 못하는 구성원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서(팀) 간 협업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추동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인사절차(다면평가 등)에 덧붙여 보직자 간 평가를 동원하는 것은 대학본부가 인사행정을 방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규정과 원칙에 따라 인사권자의 권한을 적절하게 수행할 책임은 인사권자에게 있는데, 보직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자기합리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생존을 위한 개혁에서 직원 보직 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에 상응하게 각 영역별로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기의 원인처와 책임처가 먼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대학의 위기 극복, 생존과 발전을 위한 개혁이라는 대전제에 동의하며, 언제나 그 역할에 동참해 왔고 희생도 자처해 왔음을 자부한다. 현재 직원 구성원의 감소로 인한 편중·하중·과중한 업무의 고통에도 군말 없이 일터를 지키고 있다. 이는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복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대학본부는 생존을 위한 개혁의 길에서 선후비중을 확실하게 살펴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성공을 위한 왕도는 있다!

2023. 1. 12.

제18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